**교제와 나눔**

**ㆍ코로나 봉쇄 재강화:** 4월 18일(주일) 까지

**ㆍ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사순절40일 묵상자료들을 잘 활용하세요.

**ㆍ부활주일:** 다음 주일, 4월 25일 주일부터 대면예배 전환 예정

**ㆍ유초등부:** 매주일 12시 가족예배, 15시에 2부 활동 온라인 진행

**ㆍ청소년부:** 매주일 14시 자체예배, 15시에 2부 활동 온라인 진행

**ㆍ청년부:** 매주일 13시 2부 활동 온라인 진행

**ㆍJC캠프:** 4월 5일(월) 16시~4월 8일 점심까지 온라인 진행. 강사-민기도 목사

**ㆍ헌금:** 교회구좌로 송금해 주세요.

**ㆍ생일축하:** 김종권

**\*\* 함께 기도합시다 \*\***

1)비대면 예배와 교육부서별 활동이 은혜롭게 운영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감염된 이들을 고쳐 주시고, 방역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지켜 주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누가22:24-38 월/누가22:39-53 화/누가22:54-71 수/누가23:1-12

목/누가23:13-25 금/누가23:26-43 토/누가23:44-56 일/누가24:1-12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86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3월 28일** | **4월 4일** | **4월 11일** | **4월 18일** |
| **예배기도** | 송수미 | 강일구 | 한상철 | 박상훈 |
| **말씀일기** | 정규선 | 민경웅 | 손민해 | 석혜진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나지홍, 박성희  | 서희정, 유근임 |

**38-13호 2021년 3월 28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116:2)

주일예배: 12:00 각 가정에서

유초등부: 12:00 가족예배

 15:00 2부 활동

청소년부: 14:00 자체예배

 15:00 2부 활동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언제 어디서든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Palmsonntag)**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 ……… | 다함께인도자 |  |
| ※찬송/Gemeindelied ……….......................... 141장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129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139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영원한 문아 열려라 ...........……….... | 송수미 집사정규선 집사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요한19:31-42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새 생명 새 제자**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찬송/Gemeindelied ..….…..….………..…….. 151장 …....….…..….………………봉헌/Kollekte …………..................................................................................................... | 설교자다 함 께다함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눅21:29-38 ‘좋은 선택’ ◈**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3).

오늘 또 ‘말씀일기’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분명 좋은 선택을 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목숨 걸기로(감히 그렇게 표현해 본다) 결심하고 지금까지 달려 온 것 참 잘 한 일이다. 매일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말씀 읽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기록하며 내내 기도하게 되니 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는 또한 뜻 밖에 다가올 그날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36b)는 길이 될 것이기에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도 변하고, 심지어 해와 달과 별도 흔들리고 변한다.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도 쓰러진다. 하지만 주의 말씀만은 요동치 않고 영원하다. 그러므로 나와 교우들은 ‘말씀일기’를 통해 영원에 맞닿아 있다. 쓰러지고 사라질 것들에 목매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자신을 동여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얼핏 우리가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말씀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다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19). 말씀은 내게 기쁨도 주고 때로 지혜도 주지만, 말씀은 또한 내게 아픔을 주고 눈물 흘리게 하며 두렵게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더구나 내가 끝이 오는 징조, 그 날이 다가오는 징후를 보고 느낄 수 없다면 몰라도, 싹이 나면 봄이 오고 잎이 푸르러 가면 여름이 오고, 오곡백과 무르익어 황금 들판을 덮을 때면 얼마 멀지 않아 겨울이 오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가야 한다.

내 인생도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 사역의 후반전이라 아니할 수 없는 때를 맞았다. 뭔가 ‘시작도 못해 본 것 같은데 벌써?’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으나, 남은 생을 집중할 방향을 ‘영원한 생명말씀’에서 찾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변하고 사라질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말씀은 나를 궁극적 기쁨으로 안내할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가슴에 감동과 깨달음으로 함께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찬양한다.